

별첨

자주 문의하는 사항(FAQ)

Q1. 주관기업은 경기도에 있고, 파트너 기업은 경기도에 소재하지 않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A1. 파트너 기업의 소재지는 도내·도외 모두 가능하며, 주관기업은 반드시 경기도내 소재하여야 합니다.

Q2. 파트너사의 기준 및 매칭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A2. 파트너사의 기준은 전국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주관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진흥원에서는 파트너사 매칭(결정)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Q3. 융합과제란 무엇인가요?

A3. 융합과제란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공고문 내 협업 및 융합유형과 [참고1] 융합사례별 중소기업융합 유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합과제 유형 및 사례 (공고문 일부 발췌,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① 제조업 + 제조업 : 같이 연결할 수 있거나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기기 및 기능을 결합하여 시공간 절약

② 제조업(제품) + 서비스 : 제품 사용에서 느끼는 불편함·아쉬움을 채워주거나, 부가기능을 통해 만족을 극대화

(사례1) 팩스 + 프린터 + 복합기 → 복합기

(사례2) 휴대용 닌텐도 게임기 + 3D 액정제품 → 닌텐도3DS

(사례3) 기존 진공청소기 + 핵심로봇기술 적용 → 로봇청소기

Q4. 기업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4. 총 사업비의 30%(부가세별도) 이상 현금부담 조건입니다.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조성비율	100%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6,000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Q5. 기업부담금은 주관기업만 부담해야 하나요?

A5. 아닙니다. 기업부담금은 주관기업과 파트너사가 협의하여 부담 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Q6. 지원금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6 지원금은 2회 분할 지급됩니다. 주관기업의 자부담(총 사업비의 30%)현금을 전용 계좌에 입금완료시, 선금(지원결정액의 70%)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과제 추진 완료 후 정산 결과에 따른 잔금(지원결정액의 30%)이 전용계좌에 지급됩니다.

Q7. 사업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A7. 주관기업 및 파트너는 사업비에 대한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화 과제 계획서에 정한 비목별로 집행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Q8. 사업비 구성중 간접비(인건비·운영비)는 다 계상 가능한가요?

A8. 사업비 구성 중 간접비는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계상 가능합니다.

Q9. 파트너사도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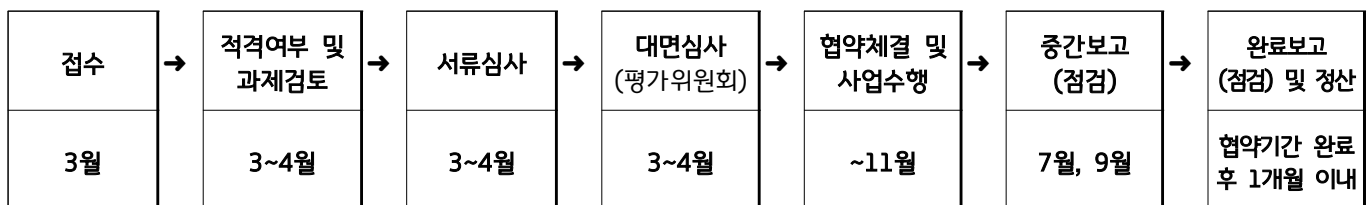
A9. 사용 가능합니다. 파트너사도 주관기업처럼 사업비 관리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경과원 승인 후 사용가능)

Q10. 사무 용도를 위해 구입되는 컴퓨터도 직접비에 포함이 되나요?

A10. 사무용도를 위해 구입되는 컴퓨터(부속품 및 소프트웨어 포함)등 사무용 기자재의 구입(자산취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의집행시 불인정되어 환수됩니다.(상세 내용은 별첨3 참고)

Q11. 추진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A11. 아래 추진절차 참고 하시면 됩니다.



Q12. 저희 기업은 ~과제를 하려고 하는데, 융합인가요?

A12. 우선 기업별 과제가 융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만으로는 담당자가 파악하기가 어려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래 융합 지원사업에 대한 사례를 다시 한 번 보시고 판단하여 파트너사와 같이 지원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잘못 이해한 사례(단순 외주)**

사례 1. 우리 회사(A)는 제품을 만들고 협력업체(B)는 시제품을 제작합니다.

이런 경우 융합인가요?

- A사가 신제품을 설계 및 개발하고 A사의 요청대로 B사가 제작을 하는 경우 단순 외주 계약이지 융합이 아닙니다.

▶ **적합한 사례(융합으로 인정되는 사례)**

사례 2. 공장 설비에 스마트 센서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개발!

A사(제조업체) : 기존 공장 설비를 제작 및 운영

B사(IT업체) : IoT 센서 개발회사

> A사와 B사가 협력하여 스마트 공장용 IoT 센서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융합 과제는 단순 외주(하청)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업이 가진 기술과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제품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거나 생산공정 개선, 기존 제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 등이 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13. 상용화 가능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한다는데 상용화란 무엇인가요?

A13. 융합과제는 2026년 11월까지 개발 완료 및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서 상용화란 계약(MOU), 판매(매출), 투자 등 실제 유상 판매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업은 과제 완료 후 이에 대한 증빙을 최

종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14. 상용화를 못하면 지원금이 환수되나요?

A14. 네, 과제 상용화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환수됩니다. 제품 디자인 및 그 이전 단계로 판단되는 경우 총 지원금의 50%가 환수됩니다. 단순 개발 완료(금형/목업)의 경우 총 지원금의 10%가 환수며, 이 경우 지원금 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하고 지원금 잔액이 지급됩니다.

Q15. 상용화로 인정하는 증빙은 어떻게 있을까요?

A15. 상용화 단계는 진흥원이 인정하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직접적인 매출이 일어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제품명이 명시된 매출 기록) 또는 수출신고필증, 입금확인증, 온라인 매출 및 수수료 정산 내역서 등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계약 및 주문이 완료되었거나 판매 채널에 입점한 경우 : 물품 공급(납품) 계약서 또는 서비스 이용 계약서, 구매 약약서(LOC) 또는 구매 주문서(PO), 기업간 MOU 또는 MOA(합의 각서), 납품 실적 증명서, 입점 확인서, 스토어 등록 화면 등 계약 및 유통 증빙서류
- ▶ 해당 제품으로 제 3자에게 투자를 받은 경우 : 투자 계약서 또는 의향서, 증자 후 주주명부, 입금 증명서(신주인수대금 입금) 등 투자가 일어났음을 증빙하는 서류
- ▶ 마케팅 및 시장 진출을 완료한 경우 : 전시회 참가 기록(국내외 전시회 참가 부스 사진 및 참여확인서, 상담일지, 현장 판매 영수증 및 후속 계약서(LOI, 본계약서) 등), 제품 출시 및 판매 개시 관련 언론 보도 자료 등 공식적으로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시스템 관련 문의
성장지원팀 김민채 대리		031-259-6299
전화	031-259-6496	
이메일	mck@gsa.or.kr	